

# 일본 시민들의 한국 연구 30년 ‘무궁화 모임’

평범한 일본 사람들 “억압받는 재일 한국인 역사·한글 공부하자” 1971년 발족  
고대 한일관계사·음식문화·조선 민중운동사·대중가요 등 다양한 분야 실증 연구



30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일본의 시민단체  
‘무궁화 모임’의 회원들

이정희

교토(일본)=이정희 교토소세대 교수(hwsan@hanmail.net)

**일**본 고베(神號)시에서는 30여년 간 한국, 북한, 재일 동포를 연구해 온 순수 시민단체 ‘무궁화 모임’이 있다. 최근 ‘무궁화 모임’이 모임 장소로 이용하는 고베시 나다(灘)구 고베학생청년센터를 찾았다. 중년 남성 회원 8명이 환한 얼굴로 맞이해줬다. 그들은 보통 일본인과 달리 곧잘 농담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자신의 활동이 처음으로 한국에 알려진다는 것에 긴장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히다(飛田雄一·52)씨는 “동료와 이 모임을 시작할 때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면서 “그후 나의 30년 세월은 이 모임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 모임은 1971년 1월, 당시 한국에 대한 일

반인의 관심이 거의 없던 시대에 15명의 젊은 이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재일 한국인의 역사와 한글을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그래서 모임의 이름에 식민지하 조선에서 저항운동을 상징하던 꽃인 무궁화를 넣었다. 발족 당시의 회원은 히다씨를 비롯해 3명만 남았고, 나머지 5명은 그후 참가했다. 이 모임은 그후 연구 영역을 한민족의 역사, 문화 등으로 확대했다.

## 한동안 매주 화요일 ‘연구모임’

‘무궁화 모임’은 출범 때부터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주 화요일 연구회를 가졌다. 그후 월 2회로 줄이긴 했지만 순 적이 없다. 사실 대학 연구자도 30여년간 월 4회 혹은 2회의 연구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회원은 모두 직장인이다. 이들은 직

장 생활의 여가를 활용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회를 통해 그 연구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무궁화통신’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한다. 이 통신은 26쪽 분량으로 격월로 발행되며, 고베 대지진 때를 제외하고는 발행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 1월까지 196호가 발행되었으며, 발행 부수는 550부다.

1977년 대기업 사원일 때 가입한 사사키(佐佐木道雄·55)씨는 “유럽의 경우 이웃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들었다”며 “이웃나라인 한국의 문화를 알고 역으로 일본을 알기 위해 이 모임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후 그는 한국인의 삶과 민속 문화에 대해 연구를 시작,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음식문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송이버섯을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일본인은 송이버섯 요리를 일본의 독특한 음식문화로 여긴다. 14세기에 쓰인 이색의 목 은집(牧隱集)에 시의 제목으로 송이(松茸)가 등장하는데, 일본에서도 송이버섯이라 할 때는 이 한자를 사용한다. 17세기와 18세기에 나온 일본의 사전은 동의보감에 나온 ‘버섯 중의 제일은 송이’라는 기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중국의 문헌에 송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12년으로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송이버섯이 버섯 중의 왕이라는 생각은 한국에 그 기원이 있으며, 그것이 일본과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송이버섯 하나만 봐도 한·중·일 간에는 음식문화의 상호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장 조사·사료 통해 구체적 연구

사사키씨는 이처럼 음식 재료를 가지고 동아시아 3국의 음식문화를 비교하고 그 속에서 3국간 문화의 접점을 연구한 책을 2권 발간했다.

세관에 근무하는 데라오카(寺岡洋·61)씨는 전문가도 어렵다는 고대 한일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고대 한일교류사를 연구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문화를 전해주었다기보다는 교류가 밀접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며 “일본의 유적을 탐사해 보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통치와 국가운영 방식 등 폭넓게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창단 멤버인 호리우치(堀内稔·55)씨는 식민지 시기 조선과 일본에서 일본에 대항해 펼친 조선 민중의 운동사를 정리하고 있다. 1998년 출판한 ‘효고(兵庫)현 조선인 노동운동사’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개 신문의 기사를 읽고 정리한 것으로 집필에 걸린 시간만 8년이다.

그냥 한국이 좋아서 이 모임에 가입했다는 야마네(山根俊郎·51)씨는 ‘무궁화 모임’에서 줄곧 남북한 대중가요를 연구해 왔다. 연구하는 대중가요는 일제시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다양하며 이를 총 정리하고 있다. 그는 매일 케이블방송을 통해 한국의 방송을 시청하고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가요방에서 최신 가요를 배운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는 좋아하는 노사연의 히트곡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가사에서 느끼는 것은 한 국인의 솔직함이다. 일본인은 아무리 좋아도 말하지 않는 게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국인은 좋은 것은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 극단적 예가 이 가사가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의 솔직함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매우 구체적이다. 대학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손대지 않았던 연구 영역을 중요 사료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개척해 왔다. 호리우치씨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연구자도 우리의 연구를 인정해 준다. 구체적인 연구인만큼 그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과는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

교토(京都)에 가서 대학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들의 모임에 초청받아갈 정도”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 매달 5만여원 회비로 운영

‘무궁화 모임’은 회원만의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다. 대학 연구자, 재일 한국인 사학자는 물론 한국의 연구자와도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들의 연구회에 초청되어 강의를 한 한국인은 고은·황석영·박원순·리영희·안병직·박홍규씨 등 유명인사들 이 많다.

이 모임의 운영은 외부의 도움없이 철저히 회비에 의존한다. 회원은 매월 5000엔(5만여원)의 회비를 낸다. 일반 모임의 보통 회비가 500~1000엔인 것과 비교하면 꽤 많은 편이다. 이 회비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료, ‘무궁화통신’ 발행비, 출판보조금 등으로 사용된다.

직장인으로서 이같은 활동을 지속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야마네씨는 “이 모임을 통해 배운 한국어가 큰 도움이 된다. 근무처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내가 통역을 전담한다”며 “이 활동과 직장 일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데라오카씨는 “처음에는 집사람이 이 활동을 잘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연구 성과를 올리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했다. 사사키씨는 최근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인생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이 모임활동이 여생을 더욱 의미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모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회원 모두가 50세를 넘은 고령화로 이들의 활동을 이어나갈 후배가 없다는 점이다. 히다 대표는 “그래도

억지로 후배 양성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임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까지 우리들이 해 온 활동과 이를 기록한 책이 후세에 읽혀지고 알려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서 “회원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囧

“송이버섯이 버섯 중의 왕이라는 생각은  
한국에 그 기원이 있으며,  
그것이 일본과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송이버섯 하나만 봐도  
한·중·일 간에는 음식문화의 상호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원들이 출판한 책자와 자료집

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만큼 이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사사키씨는 “한국의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있지만 나처럼 포괄적으로 음식문화를 가지고 한일문화에 접근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데라오카씨도 “처음에는